

# LS전선, 세계최대 525kV급 HVDC 케이블 상용화 성공

(초고압직류)

도체 허용온도 개선... 용량 50% ↑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 공급  
“국내외 주요 사업 적극 참여할 것”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HVDC)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며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 LS전선은 향후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와 독일 테네트 프로젝트 2단계 사업 등 국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은 525kV(킬로볼트)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C에서 90°C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S전선 직원이 구미 공장에서 초고압 직류(HVDC) 케이블을 테스트하고 있다. /LS전선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프로젝트는 동해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다. 1단계는 동해안-신가평 변환소 구간이며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2단계도 추진 중이다.

HVDC는 기존 교류(HVAC)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최대 3배 많은 전력을 장거리로 전달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시

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오는 2030년 4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LS전선은 유럽(1950년대)과 일본(1990년대)보다 늦은 2008년 HVDC 케이블 개발에 착수했지만 지난 2012년 HVDC 기술 개발에 성공해 국내외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이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은 전 세계에 6

곳뿐이며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유일하다.

LS전선은 지난 2022년에는 영국 북해 보레아스 풍력발전단지과 뱅가드 풍력발전단지 관련 HVDC 케이블 공급 계약을 수주, 2023년에는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네트로부터 2조원대 HVDC 케이블 사업을 따내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벨기에 전력회사 엘리자와 2800억 원 규모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2월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네트의 자회사 테네트 오프쇼어와 9100억 원 규모 독일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했다.

또한 LS전선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인해 추가적인 호재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36년까지 완료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에서 생산한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까

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과정에서 바다 밑을 가로지르는 장거리·대용량 송전이 가능하려면 일반교류송전이 아닌 HVDC 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에 LS전선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LS전선은 자회사인 LS마린솔루션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거리 HVDC 상용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업자 선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S마린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전남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해저케이블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기술 신뢰도를 입증했다.

이인호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CTO)은 “HVDC 시장 경쟁력은 상용화 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며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동해안-수도권’ 2단계, 독일 테네트 프로젝트 2단계 등 국내외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골프 GTI. /폭스바겐코리아

## 폭스바겐코리아, 신형 ‘골프 GTI’ 출시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토크 37.7kg·m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시장의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8세대 부분변경 모델인 ‘신형 골프 GT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지난 3월 출시한 8세대 부분변경 모델 ‘신형 골프 TDI’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고성능 모델로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신형 골프 TDI 출시 3개월 만에 신형 골프 GTI를 출시했다. 신형 골프 GTI는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해치백인

골프의 고성능 버전으로 이번에 한국 시장에 소개되는 모델은 8세대 부분변경 모델이다.

골프 GTI 최초로 전면 일루미네이트드 로고가 적용됐다. 실내에는 비엔나 레더 프리미엄 스포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됐고 운전석 전동 조절·메모리, 전동 허리뼈 지지대 기능이 추가됐다.

신형 골프 GTI는 EA888evo4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TS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토크 37.7kg·m을 발휘한다. 국내 복합연비는 리터당 10.8km다.

/이승용 기자

## 두산에너지빌, 베트남 가스발전소 사업 수주

PVN과 9000억 규모 계약  
주기기 공급, 건설 등 담당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글로벌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그룹(PVN)과 약 9000억원 규모의 오몬(OMon)4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의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 PECC2와 컨소시엄을 맺고 계약에 성공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주기기 공급, 건설, 종합 시운전 등을 담당한다.

오몬4 가스복합발전소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남서쪽 약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총 발전용량 1155MW 규모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인근 갠터 지역을 포함해 베트남 남부지방의 전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레 만 흥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그룹(PVN) 회장(뒷줄 왼쪽 다섯번째), 응웬 타이 안 베트남 국영전력공사 부사장(뒷줄 오른쪽 두번째), 이현호 두산에너지빌리티 Plant EPC BG장(뒷줄 왼쪽 첫번째) 등 프로젝트 관계사 주요 경영진이 오몬4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그동안 베트남 발전시장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입증한 경쟁력이 이번 수주로 이어지게 됐다”며 “베트남은 2030년까지 최대 37.4GW 규모의 가스복합발전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수주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5건, 약 4조 3000억원 규모의 해외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냈다. 지난 2월 카타르 피킹 유닛(약 2900억원)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루마1, 나이라야1(약 2조 2000억원), PP12(약 8900억원) 프로젝트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여경협, 박치형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박치형 전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사진)이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신임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이사회 임명 동의를 거쳐 오늘부터 3년간 상근부회장으로서 공식 임무를 시작했다. 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직도 함께 맡는다.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부에서 17년간 근무하며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으로 재직하며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 바 있다.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산업 육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협회의 정책 추진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빛나 기자

## 대동, 유럽시장 품질 보증 강화

트랙터 전 모델 7년 무상 보증

대동이 유럽 전역에서 품질 자신감과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동은 유럽에서 판매 중인 트랙터 전 모델에 대해 7년 무상 보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증제는 기존 5년·3000시간 수준이던 파워트레인 보증을 7년·5000시간으로 확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5년 보증도 새롭게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유럽 내 40여 개 농기계 브랜드

의 평균 보증 기간이 3~5년 수준인 가운데, 7년 무상 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대동이 유일하다.

대동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주요 11개국에 스마트농기계 관리 플랫폼 ‘카이오티 커넥트’ 앱을 공식 출시했다. 이 앱은 AI 챗봇, 차량 관제, 원격 진단, 작업 이력 기록, 안심구역 설정, 긴급 호출(SOS) 등 다양한 실시간 원격 관리 기능을 제공해 고객의 농작업 효율을 높인다.

대동은 하반기 중 커넥트 앱 적용 국가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까지 텔레매틱스(TMS) 장치를 전 트랙터 모델에 기본 장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고객 지원, 부품 공급 체계 고도화, 운영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며 유럽 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동은 올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3.6%,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치환 대동 유럽법인장은 “현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디지털화된 서비스와 장기적 지원 체계를 통해 유럽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